

외연의 확대, 지평의 확산*:

동남아 미술 연구 10년

강 희 정**

국문초록

이 글은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2008년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까지 약 10년간 동남아시아 지역학 분야에서의 동남아 미술 연구를 검토했다. 이 연구들은 동남아의 미술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검토했다. 이 기간에 발표된 동남아시아 미술 연구 논문은 50편이며, 베트남 미술과 인도네시아 미술에 관한 논문이 다수를 점한다. 11개국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연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짧은 기간에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도자기와 조각에 집중된 제한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이 기간의 연구는 불균형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동남아 지역 연구 환경을 살펴보면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미술 관련 연구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연구 분야와 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동남아 미술 연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주제어: 동남아 미술, 베트남, 도자기, 캄보디아, 불교미술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B0001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I. 동남아 미술 연구의 시작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동남아시아 미술을 다룬 연구가 늘어난 것은 2008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고고학, 미술사, 미학 등 어느 분과 학문을 막론하고 동남아 미술이 전면적으로 다뤄지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나 한국의 미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앞서 앙코르와트를 다룬 이 분야의 선구적인 서적이 출판됐고(서규석 2006), 보로부두르를 다룬 책(서규석 2008, 가중수 2013)도 연이어 간행됐지만 이들 모두 해당분야 전문연구자의 출판물이 아니며, 신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에서 일본어 발음을 써서 원래의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렵다. 학술적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 연구자에 의한 동남아 미술 연구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은 2008년 이후이고, 동남아 미술 연구의 확산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정적인 지원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일반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남아 여행 붐이 일어 동남아를 가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미술, 혹은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은 기관에서도 인문한국 지원사업과 별개로 동남아 미술 관련 전시와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성과와 의미에 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 학계 및 인문한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동남아연구단의 학술활동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기관에서 이뤄진 동남아 관련 연구 및 전시를 주요 대상으로 연구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미술을 다룬 연구논문은 대략 50편이 발표됐다. 필자가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학술지를 검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논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남아 미술에 관한 논문은 50편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전시 도록을 포함한 단행본은 18권이 출간되었다. 단행본 중에는 동남아만을 다룬 책만 아니라 동남아의 미술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내용이 실린 책이 포함되어 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은 동남아 11개국 가운데 지역으로 보면 대륙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미술에 관한 논문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라오스와 브루나이의 미술이나 문화재를 언급한 글은 단 한 편도 없다. 베트남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미술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연구가 지역별로 편중된 것은 의미 있는 과거의 문화재가 남아있는 나라인 이들 나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이다.

사실상 2008년 이전에 미술사, 혹은 근대 이전의 역사를 다루는 동남아 연구자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이 분야 연구가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2008년부터 동남아시아의 미술에 관한 논문 발표가 늘어난 것이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지원사업 중 해외지역학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연구단이 선정된 곳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두 군데이며, 이후 동남아 미술과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도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젠다는 각기 다르지만 두 대학교가 인문한국 지원사업 동남아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동남아 미술에 관한 연구 역시 이전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두 대학의 동남아 연구단이 HK사업에 선정되고 연구진이 구성되

면서 이후 약 10년간 동남아시아 지역학 분야에서 동남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국공립 박물관과 문화재청 산하 여러 기관에서 동남아 미술 전시를 하거나 다양한 대중화 사업을 펼치고, 관련 인력 교육도 꾸준히 진행했다.¹⁾ 한아세안 센터의 기획 강좌들, 지방에 소재한 국립박물관, 진주 토지구택박물관, 지방의 대학교 박물관 등에서는 동남아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대중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남아 중에서도 주로 어떤 지역의 미술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가,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동남아 미술과 문화유산 관련 연구의 방향을 검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11개국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연구가 짧은 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닌 채 진행되었음을 미리 언급해둔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동남아 미술 관련 연구서와 논문은 정량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이 무렵에 창간된 부산외대의 학술지 『수완나부미』에 실린 베트남 옷칠 회화에 관한 글(배양수 2009)과 태국의 불교사찰 관련 글(노장서 2009), 미얀마의 불교유적을 소개하는 글(박장식 2009)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미술에 관한 글들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동남아 미술을 다룬 안내서의 발간도 늘어났고, 다양한 도록도 출간되었다. 논문들은 『동남아시아 연구』, 『수완나부미』를 위시하여 『한국도자학연구』, 『미술사와 시각문화』, 『중국사 연구』, 『역사와 경계』 등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이들 학술지 대부분이 한국연구재단

1) 인문한국 지원사업은 2007년 이래 10년간 지속되어 대형과제를 수행한 5개 대학과, 중형·소형 과제, 해외지역 연구를 수행한 38개 대학을 포함하여 43개 대학 연구소가 참여한 대규모의 국책 연구사업이었다. 1차년도 선정 16개 대학 연구소는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2차년도에 선정된 연구소가 2018년 8월, 그리고 2022년까지 전체 43개 사업단의 10년에 걸친 연구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성과확산센터 자료 기준.

단 등재학술지이다.

II. 동남아 미술 연구의 분야별·지역별 분류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서나 인간의 창조적인 조형 활동은 존재했다. 인류는 때로 자신들의 미적 감각을 살린 순수한 감상용 미술을 만들거나 기능적 목적을 염두에 둔 실용적인 미술품을 제작했다. 동남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동고(銅鼓, bronze drum)와 청동 도끼, 토기 종류부터 시작된 창작 활동은 싱가포르와 발리 등지에서 왕성하게 제작되는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전통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건축,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분야별로 살펴본다면 동남아 미술 연구는 조각과 공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근세 이전의 미술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술작품이 많지 않은 회화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공예 중에서도 금속공예나 기타 칠공예보다는 도자기를 공예사 입장에서 다룬 연구가 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애석하게도 현 시점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의 현대미술은 거의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동남아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잠재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동남아 현대미술 연구의 불모지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2007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싱가포르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현대미술 프로젝트 City-net Asia 2007>을 개최했고, 2010년에는 아라리오 미술관에서 <군도의 불빛들 동남아시아 현대미술 Beacons of Archipelago Contemporary Art from Southeast Asia> 전시를 개최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2019년 개

관을 목표로 한국·일본·싱가포르 협력전시 <세상에 눈뜨다_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기획전을 준비 중이다.²⁾ 이처럼 우리나라 미술계 일각에서 동남아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대중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동남아 미술 연구자층이 아직까지 두텁지 못한 상황이 현대 동남아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미술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가 많고, 무엇보다 연구 인력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현대 미술의 다양한 매력과 독창성은 매체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확장성(trans-mediality)이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단 현대미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다면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연구자가 없는 형편이다.

표1. 분야별 논문 편수

분야	회화	조각	건축 (이슬람)	도자 (공예 포함)	고고학 (발굴 성과 중심)	근대	기타	총계
편수	4	15	2	15	5	3	6	50

현재까지 남아있는 동남아의 미술 장르가 제한적이고 어느 나라나 종교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동남아 미술 연구 역시 분야별로 편향된 것이 사실이다(표1 참조). 동남아 미술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벽화나 독립된 감상용 회화보다는 도자기와 조각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회화 자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고 미얀마나 태국의 사원 벽화가 주류인데 이들은 불교회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종교화라는 특성상 계속 수리, 보존되어 왔으므로 특별히 역사

2) 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참조(검색일: 2018. 04. 30).

<http://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exhId=201801150000991>

적 성격이나 미술 양식의 변화를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캄보디아 씨엠립의 앙코르(Angkor) 시대 사원이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보로부두르(Borobudur), 프람바난(Prambanan), 타이의 수코타이(Sukhothai) 사원 유적과 같이 거대한 모뉴먼트는 동남아시아 미술의 위대함을 잘 보여준다. 대규모의 사원 콤플렉스는 전통시대 동남아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웅변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건축이다. 즉 공학과 수학 기술 및 지식의 축적이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된 대표적인 유적이지만 직접적으로 건축 기술이나 건축의 미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연관이 있는 연구라 하더라도 종교 조각과 특별한 접점이 있거나 종교적 맥락에 국한된 선에서 일부 다뤄졌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원들은 저마다 여러 편의 박사논문이 나올 수 있는 방대한 지식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면에 비취볼 때, 짧은 기간의 연구로는 선뜻 연구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마도 이들 모뉴먼트는 현재와 같이 성과 중심, 편수 중심의 인문한국 지원사업 등의 연구과제에서 필요로 하는 빠른 성과물 양산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점이 이에 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 대부분의 동남아 미술 연구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도자기와 불교미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현재 동남아 미술 연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학위과정부터 동남아 미술사를 전공한 것이 아니라 대개 박사과정에서 광의의 동아시아 미술사를 전공했고, 그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미술을 주로 연구한 이력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이다. 연구 성과라는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연구하기 용이한 분야가 불교미술과 도자기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것은 성과 생산의 수월함을 내포한다. 인문한국 지원

사업이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연구 성과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지만 사업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학문과 아젠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해외 지역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연구 성과의 계량적 평가가 사업 성과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간주되었던 상황에서는 논문의 양산이 필요했고, 이는 바로 인접 장르나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도자기와 불교미술이 지니는 분야의 특성상 제작 방식이 유사하고, 형태상으로도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또한 공예 가운데 베트남 도자기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이유도 있다. 베트남 도자기, 특히 청화백자가 제작된 시대가 중국이나 한국의 청화백자 제작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연구 영역이나 방법론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불교미술의 경우에는 불교라는 배경 사상이 같고, 그 기원이 인도에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불교미술과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주목 받았고, 이 점이 동남아시아 불교미술사 연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자기와 불교미술에 집중되는 연구 경향은 동남아시아 미술사 전체로 보면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제한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균형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특정 지역의 미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표2 참조). 또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형성된 현재와 같은 국가의 경계로는 설명하기 힘든 연구논문도 적지 않다. 지역이나 국가로 보면 태국, 혹은 베트남 미

표2. 발표 논문의 대상 국가별 분류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전 지역
편수	6	3	6	3	2	4	3	2	21

술 연구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역사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으나 현재는 이들 국가의 미술로 분류된 상태이다. 한편으로 탐방기나 보고서, 인상 비평의 성격이 강한 글도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미술사적 시각과 방법론으로 학문적 훈련을 받은 연구자의 글은 아니고, 지역 전문가가 해당지역 미술에 관한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술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미술사라고 분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이 미술사라는 학문분야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미술에 관련된 연구를 망라한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이 경계는 참으로 애매해서 동남아 이외의 지역을 연구한 연구자가 동남아를 바로 연구해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일이 어렵듯이, 미술이라는 것이 일정한 특수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야 미술 특유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 고유의 특성과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동남아 미술은 미술을 생산해낸 종족이나 지역과 나라가 광범위해서 미술의 맥락(context)과 제작 배경, 기능(function)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이 동남아의 특정 지역을 잘 알아도 그 미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불교미술로 널리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나 복합적인 종교 공간으로서 캄보디아의 앙코르 지역이 관광지로는 잘 알려졌으나 깊이를 갖춘 학문적인 연구서나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다양한 맥락이 얽혀 있어서 이들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데에 상당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Ⅲ. 지역 전문가에 위한 동남아 미술 연구

2008년~2018년까지 발표된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한 논문은 모두

50편이다. 이 중에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 전임연구인력이 쓴 글이 34편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편수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국공립기관에서 발행한 동남아 미술 전시 도록은 10권이 발행되었으며, 단행본은 8권이 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2권의 번역서가 포함된다. 단행본은 동남아만을 대상으로 쓰인 책과 주변 국가나 동남아와 관련이 있는 시대, 문화, 미술을 함께 거론한 책도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먼저 미술사나 고고학 전공이 아닌 지역 전문가에 의해 쓰인 글을 논의하려고 한다.

지역 전문가의 동남아 미술에 관한 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특정한 지역의 유적을 소개하는 형식의 글이다. 인문한국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던 초기에 발표된 몇 편의 글이 여기 해당된다. 우선 미얀마 빠오족의 불교 유적인 깡꾸를 조사한 글(박장식 2009)과 태국의 고대 왕국 중 하나인 란나 왕국의 위양까롱에 산재한 도기 가마터에 관한 소개(배수경 2010)를 들 수 있다. 두 편의 글 모두 일반인은 물론이고 학자들에게도 생소한 깡꾸 유적과 위양까롱 유적을 소개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특수 지역으로서 깡꾸라는 불교 유적이 어떤 성격의 문화를 지닌 곳인지를 개괄적으로 안내한 글이었다. 위양까롱 역시 도자기 산지로 태국인에게 잘 알려진 곳이지만 특별한 미술품 생산지라기보다는 일상 생활용기를 주로 생산한 곳이다. 오랜 시간 동안 미얀마와 태국을 조사, 연구한 지역전문가이기에 이들 지역 유적에의 접근과 조사, 소개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라 하겠다.

미얀마의 깡꾸 불교유적은 산주의 주도 따웅지 남쪽 40km에 있는 불교유적으로 외부인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2700기 정도의 파고다가 세워져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글이 아니었으면 불교미술 연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태국 위양까롱 유적은 도자기 유구로 란나왕국의 도자기를 주

로 생산했던 곳인데, 도기 생산의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인 가마로 변형시켜 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아쉬운 점은 특정 시점의 맥락이 미술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시간'과 관련된 관점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 오랜 세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파고다의 건립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도 아니지만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두 논문 모두 지역전문가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소개이기는 하지만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므로 개괄적인 안내의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이 분야 연구가 여전히 개척 단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태국의 불교미술을 살펴보려 한 연구도 두 편 발표되었다. 태국 지역전문가의 논고로서 태국의 불교사원 벽화에 관한 연구(노장서 2009)와 머리카락에서 물을 짜내는 地母神에 관한 글(노장서 2010)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태국 불교사원에 그려진 벽화 특유의 성격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태국 불교사원의 벽화라고 해서 모든 지역, 모든 사원의 벽화가 어느 시대나 모두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같은 벽면에, 같은 방식으로 그린 것이 아니며, 각 그림의 구성과 내용,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벽화가 같은 구성과 화법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며, 그림의 주제 또한 얼마든지 다르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사원의 벽화를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개별 사원 벽화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길게 기른 머리에서 물을 짜내는 지모신의 도상 역시 석가모니불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 도상은 인도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머리에서 물을 짜내는 지모신

의 도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태국 특유의 소재이다. 따라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지만 그간 이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태국의 불교사원 여러 곳에 그려진 태국적인 이 도상을 조사하고 분류하여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태국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웠을 주제를 성실하게 풀어냈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이와 같이 동남아 현지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들이 분명 동남아 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미술사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자명하다. 반면 이러한 시도가 단발적인 데 그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정한 시기 미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태국과 미얀마의 종교가 전통적으로 불교였으며 역사상의 유물과 유적, 미술품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역사적 안목의 제약으로 인해 전문 연구자가 심도 깊은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준다.

IV. 동남아시아 도자 연구와 난파선 고고학

미술사 연구자들 중에서는 동아시아 미술사, 혹은 중국미술사 전공자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각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는 도자기부터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는 동남아 도자기 연구가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2명의 연구자가 논문을 써서 분석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은 (전)부산외대의 김인규이다. 그는 청자를 주 전공으로 하여 쌓아온 자신의 연구 경력과 업적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도자기에 관하여 8편의 글을 썼고, 동고(銅鼓)에 관하여 1편(김인규 2011d)을 썼다. 동남아의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청동북인 동고를 연구한 논문은 미술사의 세부 전공 분류에서 도자사가 공예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예사의 연장선상에서 동고를 포함시켜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그의 연구는 도자기, 그 중에서도 난파선에서 발굴된 무역도자 연구에 집중되었다.

무역도자 연구는 무역품으로서의 타이 흑유 도자에 관한 글(김인규 2009)에서 시작되어 필리핀의 무역 도자기 연구(김인규 2011a), 베트남 중부의 무역도자기를 살펴본 글(김인규 2011b)로 이어졌고, 다시 필리핀 산타 크루즈(Santa Cruze) 침몰선에서 나온 도자기 연구(김인규 2012, 2013)로 계속되었다. 인도 문화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었던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처럼 도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지역적인 특성상, 도자기 생산이 동북아시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교역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판단에 의한 연구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 발견된 무역도자 연구는 9-10세기에 제작되어 유통되었던 비교적 이른 시기의 도자기를 다룬 글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자기의 생산과 소비가 절대적으로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 도자기 교역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주목한 글이다. 15-16세기의 본격적인 무역 도자 생산 및 교역 시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둘 만하다. 또 문헌을 통해 ‘마르타반’이라고 불리는 미얀마의 대형 흑유항아리를 문헌으로 고찰한 경우도 좀처럼 보기 드문 연구라고 할 수 있다(김인규 2009, 2011e). 이른바 미얀마의 도기에 관한 도자사 측면에서의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이를 문헌으로 검토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이 마르타반이 원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주로 쓰인 저장용 항아리임을 생각하면 미얀마 도기의 발달이 원활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며 양자가 긴밀하게 연관되었음을 시사하는 예라 하겠다.

그 외 동남아 도자기 연구에서 개별 지역이나 특정한 유형의 도자에 관한 연구로 특기할 만한 것은 베트남에서 청화백자의 출현 시기와 전개 방향을 검토한 글(김인규 2010)과 동남아시아窯址의 성격과 구조, 기원을 분석한 논문을(김인규 2012) 들 수 있다. 동남아 일대에서 발견되는 중국의 도자기 연구는 일찍부터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도자사 전공 연구자들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도자기 컬렉션이 워낙 방대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비교 연구가 쉽지 않은 까닭에 동남아에서의 도자기 생산과 유통, 그리고 교역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논문들이 다루는 도자기가 제작된 시대보다 훨씬 늦은 시대에 해당하는 유럽과 동남아에 전해지는 17세기 중국의 무역도자에 관한 논문도 있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고학의 성과에 크게 기댄 연구들이다. 즉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발굴되는 난파선과 난파선 출수 유물을 중심에 둔 고고학의 발달, 그로 인한 도자기 연구의 새로운 변화와 도자 연구의 경향을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글이 발표되었다(방병선 2009). 동남아시아의 도자기, 혹은 동남아에서 발견되거나 전해지는 도자기를 대상으로 한 이 논문들은 중국과 한국 도자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동남아 발견 도자와 동남아 도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의 귀추가 주목된다.

도자기는 ‘흙과 불의 연금술’이라고 할 정도로 흙과 불이 중요하다. 양질의 고령토를 빚어 1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야 고급의

자기가 된다. 그렇지만 동남아에서는 태도가 되는 흙과 가마 구축의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오염된 물질로 간주하여 사용하기를 꺼리는 인도 문화의 유습으로 인해 도자기가 다양하게 발달하거나 산업적으로 융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1250도의 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자기의 질적 측면보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도기와 토기로 연구 영역을 넓혀보면 동남아의 도자기 연구는 그 가능성이 매우 넓다. 도자기를 전혀 발달시키지 않은 인도 문화의 영향에 따라 일상생활용기로 목기(木器)와 나뭇잎을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쓰는 등 일찍부터 도자기를 발달시킨 동북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한 도기 생산은 동남아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독자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 태국의 도기와 앙코르 시대 캄보디아의 도기 및 기와, 베트남 중부 참파에서 생산한 참파 도기와 같은 경우로 확장하면 도자기와 관련 있는 연구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생활용기, 의례용기로서의 도기와 자기로 동남아 도자 연구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V. 동남아 종교미술 연구의 확산

6세기 중국 불교미술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동남아로부터 새로 유입된 미술의 영향에 의해 이뤄졌다는 알렉산더 소퍼(Alexander C. Soper)의 지적은 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oper 1960). 처음부터 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 연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쪽의 연구자들이 주도했고, 순수하게 동남아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소퍼의 지적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과 동남아의 불교미술을 비교하는

연구는 소피의 언급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복제·복주 불상의 연구』에서 구체화되었다(정예경 1998). 다시 오랜 시간 이와 관련이 되는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가, 2009년에야 비로소 동남아 불교조각 연구는 푸난 불교조각과 인도의 조각을 비교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였다(강희정 2009). 이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의 불교미술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불교조각과 동남아의 불교조각을 비교함으로써 동남아 불교조각의 기원을 살피고 두 지역 조각의 친연성을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는 인도화의 한 갈래로 동남아 대륙부에서 발달한 고대 불교미술과 힌두교 미술에 대한 검토(강희정 2011), 푸난과 중국, 인도의 불교조각을 양식적으로 비교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강희정 2010a). 전자의 논문은 조각이라는 장르에서 불교와 힌두교라는 종교에 관계없이 같은 양식의 조각이 조성됐다는 점에 착안한 글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Angkor Wat)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Borobudur) 조각 가운데 일부를 분석하는 연구도 나왔다. 특히 보로부두르의 불전(佛傳) 도상을 다룬 글(유근자 2010)과 앙코르와트 제1회랑에 부조된 ‘32지옥도’가 눈에 띈다(고정은 2011a). 이 두 편의 글은 앙코르와트와 보로부두르의 역사적 건립 배경이나 건축적인 측면, 모뉴먼트의 기능을 거시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부조의 내러티브(narrative)를 다뤘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앙코르와트나 보로부두르와 같은 동남아의 거대 모뉴먼트를 주제로 한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 논문만으로도 동남아 불교미술 연구의 가능성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앙코르와트와 보로부두르처럼 복잡한 철학을 구현한 모뉴먼트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이 두 편의 글처럼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서사 부조에 관한 분석부터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연구의 기초를 닦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낮은 부조로 표현된 불교미술에 관해 전문적으로 접근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특정 주제를 상세하게 검토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위의 논고들은 기억할 만하다. 석가모니의 생애를 형상화한 불전 미술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생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동시에 미술로도 전해졌다. 그의 생애와 과거생의 이야기 미술은 불교문화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은 모두 다르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불전 미술 연구도 그다지 활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불교미술에 표현된 불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이다. 적어도 14세기까지는 동남아시아에서 대승불교와 밀교의 이념과 신앙을 표현한 불교미술이 제작되었고, 15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상좌부 불교가 핵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사의 흐름에 비추어도 동남아시아의 불전 미술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연구가 가능할 만큼 그 주제의 확장성이 커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정은 2012).

고대 동남아의 불교미술 연구는 대부분 베트남과 과거에 캄보디아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던 곳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전세품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때 캄보디아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태국의 드바라바티 지역 불교미술 역시 주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몇 편 없었고, 이를 둘러싼 논의는 빈약하다. 깊이 있는 분석과 반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7세기 이전 불교 조각의 양식적 근원과 주변국 미술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주력했다(강희정 2010a). 반면 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제 불교 조각이나 공예품이 발견된 예가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지배층에 의해 대규모로 조성된 자바의 모뉴먼트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오래된 불교, 힌두교 사원들이 모여 있는 중부

자바는 항상 주요 연구 대상 지역으로 주목을 받았다(고정은 2011b).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인도네시아 고유의 성격이 드러나는 힌두 사원 콤플렉스 프람바난과 보로부두르가 모여 있는 중부 자바의 모뉴먼트들이 연구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연구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전과는 관계없이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선재동자(善財童子)의 이야기 연구도 보로부두르와 관련이 깊다(고정은 2010b). 보로부두르에서 석가모니의 불전과 그의 설법 중 일부에 해당하는 비유담(Avadana)에 이어지는 다음 부조는 선재동자의 구법행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 경전의 최고 결정판이라고 알려진 『화엄경』의 한 부분인 「입법계품」이 선재동자의 여행이라는 방식으로 보로부두르에 묘사되어있고, 이로 인해 『화엄경』 미술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아시아 불교미술의 공통된 주제가 각기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교류사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인도, 혹은 중국과의 관련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물건의 유통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고대의 경우에는 교역과 교류가 문화의 흐름과 성격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물질문화 연구의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헌기록이 많은 편에 속하는 중국 양나라 무제 때의 아육왕 전승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규명한다든가(주경미 2012),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불교미술, 혹은 불교문화를 각기 다른 입장에서 달리 해석하고 받아들여 재창조한 점에 주의를 기울인 연구도 있다. 불교의 핵심교리인 생멸(生滅)의 원리를 불교식 계승(偈頌)으로 읊은 연기법송(緣起法頌)의 전래와 이의 각기 다른 표출 양상을 살핀 연구가 여기 해당한다(강희정 2014). 연기법송의 내용과 이를 탐이나 전도에 새기고 봉헌하는 행위는 같지만

연기법송을 쓰는 문자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다른 형태의 미술로 제작되었음을 밝힘으로써 불교라는 종교 세계가 어떻게 외화(外化)되었는지를 보여준 글이다.

해양루트를 통한 동남아와 외부 세계와의 교류 양상, 그 결과로 인한 물질문화 및 사상의 보급에 관한 흥미로운 국제학술회의가 2017년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협력에 의해 공동 개최되었다. 학술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동남아시아에 전해지는 다양한 미술품의 사상적 기원과 유통 양상, 동남아에 미친 인도의 영향과 동남아를 통해 동북아시아로 전해진 종교와 물질문화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에서도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에 관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학술회의를 기반으로 내용을 보완한 연구들이 2018년 2월에 일부 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아마라 스리스чат 2018, 강희정 2018, 쥘 득 아인 선 2018). 동남아와 중국, 한국과의 교류의 역사를 유물을 통해 살피는 작업은 한국고대사, 고고학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일이다. 두 지역 간의 수자원 관리 체계를 검토한 글(권오영 2016)이나 유리를 비롯한 출토 유물을 통해 이들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김규호·윤지현·권오영·박준영·Nguyen Thi Ha 2016, 권오영 2017).

불교미술 연구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것으로 박물관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각지의 박물관들을 각각 종족, 국가, 근대성의 관점에서 조망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은 박물관학, 미술사, 인류학 분야에서 동남아의 박물관을 조망한 최초의 서적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남아 11개국의

박물관을 고루 다룬 것도 아니고, 일정한 유형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박물관 선정에는 일관성이 없다. 연구된 박물관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의 박물관 일부를 대상으로 했을 뿐이라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총망라한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 대중에게나 연구자들에게 동남아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베트남 다낭의 참과조각박물관을 소개한 글도 있다(고정은 2010). 베트남 전공자를 제외하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참죽의 종교문화를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박물관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근대에 새롭게 대두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과 그로 인한 종교적, 문화적 변용에 관심을 쏟은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예배공간으로서의 사원이 건립되었지만 이슬람 건축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에는 제약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인도의 이슬람 사원과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유형별 분류를 한 논문(구하원 2011)도 흥미롭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미술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중국인의 대거 이주를 통해 만들어지거나 이식된 중국 남부의 화인(華人) 문화와 현지 미술과의 융합을 다룬 논문(강희정 2013), 화인들의 대량 이주의 역사와 그들이 만들어낸 복합문화로서 페라나칸(peranakan) 미술, 그 안에 숨은 중국 문화의 상징성과 서구적인 미감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강희정 2015)가 이에 해당한다. 동남아의 화인 인구와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이 다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지만 중국 문화와는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VI. 문화재 발굴과 복원: 한국과 동남아 협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동남아시아에서 통상 고고학과 미술사는 미분화된 상태로 연구가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의 접근은 특히 고고학적 측면에서 지속되었는데 주요 대상지역은 베트남이고, 발굴이 이뤄져야 하는 학문의 특성상 대개 베트남에 국한된 상황이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에도 지식인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가진 이래 멀지 않게 느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베트남전쟁 참전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양국의 관계가 동남아 다른 지역보다 일찍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이 있다.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과학 ODA를 포함한 인력교류사업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하여 양국 간의 관계에 신뢰가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그랬듯이 베트남 역시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고고학, 박물관, 문화재 관련 연구와 실무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고 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2018년 현재 국내 기관 2곳에서 베트남 발굴에 들어갈 예정으로 구체적인 발굴 지점 협의를 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하노이 국립대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하노이 인근 교지(交趾) 군청지(郡廳址)와 베트남 남부 옥 에오(Oc Eo) 지방의 초기 문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몇 해간 이어온 현지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주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과 중부 일부 지방의 도요지를 대상으로 수년간 이어졌다. 베트남의 도자기는 기형이나 문양의 독특함과 함께 청화라는 안료의 사용과 동남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화도에서 소성한 백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중국 및 한국의 도자기와의 비교 연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자기라는 점에서 도자사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

문에 베트남의 도요지와 도편 조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은 세계 도자기 센터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계획 중에는 베트남 도요지 발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발굴을 위해 현지 기관과의 협의 아래 발굴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여러 곳의 가마터를 대상으로 지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 싸후인(Sa Huynh) 유적일대를 발굴한 경험과 인적 교류사업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또한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같은 세계문화유산인 후예의 응우옌 황릉과의 비교가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비교는 외형상의 비교, 능에 대한 기초조사에 그친 정도이지만 앞으로도 양자를 조사하고 비교, 검토하는 일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재 관련 기관들의 접촉과 교류로 인해 점차 베트남 고고학과 도자 등의 출토유물에 관한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지만 이에 대비한 전문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동남아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1995년에 인도네시아 유물 특별전이 개최된 이래 2012년에 한 번 더 전시가 이뤄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전문기관에서 앙코르 유물 전시를 1회 했던 것 외에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인도네시아 미술과 유물에 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2018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태국 방콕국립박물관의 유물 대여 전시를 계획 중이다. 문화재 복원 및 수리는 현재 개발협력 차원에서 라오스 홍낭시다(Hong Nang Sida) 유적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 미얀마로 확대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 바간의 유적도 현재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씨엠립의 경우는 느리게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적지 않아 사업 진행은 매끄럽지 못한 편이나 미얀마와 한국 정부의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12년 9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바간의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한국 문화재청에 지원 요청을 한 데서 시작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셈이다. 지지부진하던 이 협력사업이 전기를 맞은 것은 2016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 때문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바간의 건축구조물 수리와 벽화 보존 처리를 추진하다가 현재는 벽화 보존 처리로 가닥을 잡아 협의를 하고 있다.³⁾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의 경우는 이미 세계 각국의 보존팀이 들어가 오래도록 활동해오고 있어서 캄보디아를 잘 아는 복원·보존 전문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입지가 좋지는 않은 편이다. 라오스 흥남시다 유적이 한국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복원에 참여했지만 유적의 위치와 무더위로 인해 복원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교살자무화과 종류의 나무뿌리들이 무너진 건물 곳곳에 파고들어가 이를 제거하지도, 더 이상 성장하지도 못하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한다. 캄보디아부터는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바뀌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JICA가 개발 원조 사업의 연장에서 현장에 투입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앙코르 유적 프레아 피투(Preah Pithu) 사원 복원정비는 3단계 NSDP(국가 전략적 개발 계획, 2014-2018)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한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의 주요 이슈로 주목된다(KOICA 2014). 이와 같은 문화재 분야 ODA는 보존과학 중심으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좀 더 실질적인 관련 연구자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존 한국의 고고학, 보존과학 전문가, 일본에서 교육과

3)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바간의 중, 소형 사원의 무너진 벽체는 398개 사원 가운데 300여 곳의 수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다. 바간 복원에 참여한 나라들이 다수인 까닭에 일찍부터 여기 참여했던 나라들에 의해 수리가 순조롭게 진행된 편이다. 지진 발생 이후 미얀마 안팎에서 상당한 기부금들이 모여 빠르게 진척을 보였다.

훈련을 받은 한국인 유학생 출신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지역별 전문가가 필요하고, 둘째,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결론이 나온다. 아직까지 기존 연구는 동남아 도자기 연구나 교류사 관점의 연구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 외에는 막연하게 특정 지역이나 시대를 뭉뚱그린 연구가 있을 뿐이다. 지난 10년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남아 미술 관련 연구가 발전을 거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연구 분야와 대상이 한 쪽에 편중된 일방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앞으로 동남아미술사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시사한다. 지역학의 한 분야로서 동남아 미술 연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 단지 지역만 아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와 장르의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한해에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 동남아이지만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정도로 국내에서 관련분야의 연구는 부족하고 도서도 적다. 현지 박물관 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대중서를 출판하여 지식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도 전문연구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연구 성과가 충분히 쌓이지 못한 상황에서 동남아 미술과 문화에 관한 대중서 출간은 요원한 일이다. 다른 나라, 다른 시각에서 쓴 책을 번역, 혹은 편집한 정도의 책을 낼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기는 요원하다. 충실한 연구에 기반을 둔 지식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논문

- 강희정. 2008. “푸난(扶南)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 8(0): 40-67.
- _____. 2010a. “6세기 扶南과 山東의 사르나트 양식 불상: 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 東博”. 『중국사연구』 67(0): 29-57.
- _____. 2010b. “6~7세기의 동남아 힌두 미술- 인도 힌두미술의 전파와 초기의 변용”. 『동남아시아연구』 20(3): 263-297.
- _____. 2011. “고대 동남아 종교미술에 미친 인도 미술의 영향”. 『인문논총』 65(0): 189-219.
- _____. 2011. “머라이언과 박물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동아연구』 60(0): 189-262.
- _____. 2013. “中國人の 南洋 移住와 近代 東南亞의 中國系 美術”. 『중국사연구』 83(0): 37-61.
- _____.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송(緣起法頌)과 해상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 13(0): 38-61.
- Kang, Heejung. 2014. “Another Form of Orientalism: Koreans’ Consciousness of Southeast As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 JOURNAL* 54(2): 34-61.
- _____. 2015. “Kunlun and Kunlun Slaves as Buddhists in the Eyes of the Tang Chinese”. *KEMANUSIAAN* 22(1): 27-52.
- _____. 2015. “A Study on Chinese Community and Opium Farms in Penang in the 19th Century”. *JOURNAL OF MODERN EDUCATION REVIEW* 5(4): 351-359.
- _____. 2015. “‘良志使錫’ 試論- 양지의 남방도래 가능성에 대하여-”. 『서강인문논총』 43: 121-154.

- _____. 2016. “7세기 偏袒右肩 佛立像의 起源과 전개”. 『신라사학보』 36(0): 173-209.
- _____. 2017. “인도네시아 싱아사리 왕국 반야바라밀상의 정치적 맥락 - 탈식민주의시대 문화재 반환과 종교미술의 맥락 변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 6-27.
- _____. 2018. “해상 실크로드와 불교 물질문화의 교류”. 『동아연구』 37(1): 59-92.
- 고정은. 2010a. “좁은 동남아시아: <아시아박물관 기행> 베트남 다낭시 참파조각박물관”. 『수완나부미』 2(1): 129-138.
- _____. 2010b. “아시아미술에 나타난 선재동자 구법이야기”. 『수완나부미』 1(2): 119-127.
- _____. 2011a. “앙코르와트 제1회랑에 나타난 '32지옥도'의 도상특징과 그 의미”. 『강좌 미술사』36: 487-514.
- _____. 2011b.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미술을 찾아서”. 『수완나부미』 3(2): 143-152.
- _____. 2012. “베트남 중부 호이안과 참파 유적을 찾아서”. 『수완나부미』 4(1)
- _____. 2012. “동남아시아 불전미술의 성립과 도상특징”. 『강좌미술사』 38(0): 325-350.
- 구하원. 2011. “전통과 이슬람 인도네시아 근대 모스크 건축 양식의 이해”. 『동아연구』 60(0): 223-259.
- 권오영. 2016. “동남아시아 고대국가의 수리시설과 수자원 관리체계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92(0): 5-33.
- _____. 2017. “랑아수국(狼牙脩國)과 해남제국(海南諸國)의 세계”. 『백제학보』 20(0): 158-171.
- _____. 2017. “한반도(韓半島)에 수입(輸入)된 유리(琉璃)구슬의 변화과정(變化過程)과 경로(經路) -초기철기(初期鐵器)~원삼

- 국기(原三國期)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37:38-69.
- 김규호 · 윤지현 · 권오영 · 박준영 · Nguyen Thi Ha. 2016. “베트남 옥 에오(Oc Eo)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재질 및 특성 연구”. 『문화재』 49(2): 158-171.
- 김인규. 2009. “무역품으로서 타이(Thai) 흑유(黑釉) 항아리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1(2): 71-80.
- _____. 2010. “베트남 청화백자의 출현과 전개”. 『수완나부미』 2(1): 1-16.
- _____. 2011a. “필리핀과 무역도자기”. 『수완나부미』 3(2): 153-160.
- _____. 2011b. “베트남 중부지역 출토 무역도자기 -9·10세기 중국과 서아시아도자기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8(1): 25-41.
- _____. 2011c. “동남아시아 도자기에 보이는 중국도자기의 영향 -베트남 타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7(2): 11-22.
- _____. 2011d. “동남아시아 청동북의 기원과 전개”. 『동북아문화연구』 27(0): 427-440.
- _____. 2011e. “문헌에 보이는 미얀마 흑유대호(黑釉大壺. 일명 Martaban Jar)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1(2): 329-358.
- _____. 2012. “동남아시아 요지의 구조와 기원에 대한 연구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요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9(0): 5-22.
- _____. 2012. “필리핀 산타아타(Santa Ana) 유적 출토의 원대 청화백자에 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31(0): 369-384.
- _____. 2013. “필리핀 산타 쿠르즈(SantaCruz) 침몰선 출토 무역도자기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0(1): 3-26.
- 노장서. 2009. “태국의 불교사찰 벽화에 관한 연구”. 『수완나부미』

- 1(2): 1-20.
- _____. 2010. “머리카락에서 물을 짜내는 지모신 형상의 기원과 변모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3): 223-262.
- 박장식. 2009. “각꾸 : 빠오족의 불교 유적지”. 『수완나부미』 1(1): 127-134.
- 방병선. 2009. “17세기 중국 무역도자 연구 -유럽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33(0): 105-225.
- 배수경. 2010. “란나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II: 위양까롱의 도자기”. 『수완나부미』 2(1):111-118.
- 배양수. 2009. “독창적인 짜잉썬마이 : 베트남 옷칠 회화”. 『수완나부미』 1(1): 121-126.
- 유근자. 2010. “보로부두르 대탑의 불전(佛傳) 도상(圖像)”. 『수완나부미』 2(1): 17-53.
- 주경미. 2012.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미술사논단』 34(0): 187-214.
- _____. 2012.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인문논총』 67(0): 3-47.
- _____. 2013.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고대 금속공예품 연구” 『역사와경계』 86(0): 199-241.
- _____. 2014. “현대 佛敎聖地관광의 兩價性”. 『역사와경계』 93(0): 235-268.
- _____. 2015. “동남아 수증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현황”. 『역사와경계』 97(0): 385-429.
- 주경미·강민지. 2016. “미얀마 버강시대 로카테익판 사원 연구”. 『불교미술사학』 21(0): 113-148.
- 주수완. 2010. “중국문헌을 통해본 중세 동남아의 불교문화(1)”. 『수완나부미』 2(1): 1-40.

_____. 2012. “중국문헌을 통해본 중세 동남아의 불교문화(2)”. 『수
완나부미』 4(1): 57-90.

Soper, Alexander C. 1960. “South Chinese Influence on Buddhist Art
of the Six Dynasties Period”. *The Bulletin of the Museum for
Far Eastern Antiquities* 32.

2. 도록 및 단행본, 기타 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2015. 『아시아의 불교미술』. 서울:국립광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2010. 『베트남 마지막 황실의 보물』. 서울:국립고
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동남아시아 현지조사 자료집- 캄보디아,
베트남』.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1.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3. 『경복궁 석조조형물 연구 및 중국, 베트남과의 비교』.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6. 『베트남의 옹관묘』.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7. 『동아시아의 능-조선왕릉과 중국, 베트남의 능묘 미술』.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제주박물관. 2012.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제주:국립제
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베트남 전통 선』. 목포: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_____. 2017. 『동남아시아 해양문화유산과 해상실크로드』. 목포:국
립해양문화재연구소.

가중수. 2013. 『보로부두르 -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북코리아.

강희정 외. 2011. 『외부 세계와 동남아: 전통, 식민주의, 모더니티의
시각』. 서울: 이매진.

강희정·구하원·조인수. 2015. 『클릭, 아시아 미술사: 선사토기에서

- 현대미술까지』. 서울: 예경.
- _____. 2015. 『지상에 내려온 천상의 미』. 서울: 서해문집.
- 김인규. 2012. 『동남아시아 도자기 연구』. 서울: 솔과학.
- Michell George. 심재관 역. 2010. 『힌두 사원: 그 의미와 형태에 대한 입문서』. 서울:대숲마당.
- 박장식. 2016. 『동남아 문화 예술의 수수께끼: 다양성vs통일성』. 서울: 한-아세안센터.
- 서규석. 2006. 『앙코르와트』. 리북.
- _____. 2008. 『보로부두르 - 불멸의 이야기』. 리북.
- 정예경. 1998. 『중국 복제.북주 불상연구』. 혜안.
- 최호림 외. 2011. 『동남아시아 박물관: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 서울: 이매진.
- 피오나 켈로그, 박장식 등 역. 2012. 『동남아의 예술세계』. 부산: 솔과학.
- 한국국제협력단. 2014.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이아피투 사원 복원정비 기초사업 사업형성 조사 결과보고서』. Koica 보고서.
- 후지하라 사다오, 임경택 역. 2014. 『앙코르와트 -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스트와 앙코르 유적의 역사 활극』. 동아시아

(2018. 5. 21. 투고, 2018. 5. 28. 심사, 2018. 6. 8. 게재확정)

<Abstract>

Expansion of the Field: 10 Years of Research in Southeast Asian Arts

KANG Heejung
(Sogang University)

There was few research dealing with the cultural property or the arts of Southeast Asia before, however many articles and books on the arts of Southeast Asia were published since 2008. There are more than 50 papers dealing Southeast Asian art during the period. It was Vietnamese ceramics and the Buddhist relics of Indonesia which paid attention among those articles. This was relevant to the launching of the Humanities Korea (HK) projec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2007.

A study on Southeast Asian arts from each of eleven countries is difficult to achieve outstanding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art historical approach is quite a professional field, the growth of research is limited. Since art historical approach is a professional field, the growth of research is limited. At this point we can say the research on Southeast Asian art are developed in an unbalanced extent in the limited area focused on ceramics and sculptures. Over the past decade, the research on Southeast Asian art has developed, but we

still need more experts in specific regions and fields. For establishing the art history as a field of regional studies, it is imperative to cultivate specialists in each region for the profound and balanced understanding the value of Southeast Asian art.

Key Words: Southeast Asian Art, Viet Nam, Cambodia, Ceramics, Buddhist Arts, HK Project by NRF

* 이 글이 쓰인 이후인 2018년 상반기에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기관에서 사회과학원과의 협력으로 하노이와 옥에오에서 발굴대상지 선정이 확정되어 발굴에 착수했음을 확인했다. (p. 63)